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05/20

대통령의 미국 방문,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5월 5~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하원 합동연설 등 주요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불거진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귀국 후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박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긍정 평가는 방미 중이던 5월 6~9일 56%까지 올랐으나, 윤창중 파문이 확산되던 13~15일에는 51%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7%에서 27%로 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3~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방미 성과,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5월 13~15일(3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5. 표본오차: $\pm 3.1\%$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8%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박 대통령 미국 방문, 국익에 도움됐다’: 66% -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 -
- 국익에 도움이 됐던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 27%, ‘대북정책 공감대’ 14%
-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 45%, ‘뚜렷한 성과 없음’ 26%
-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 의회 연설’ 31%, ‘윤창중 대변인 경질’ 8%
- 미국 방문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는?: ‘좋아졌다’ 39%, ‘나빠졌다’ 10%,
‘변화 없다’ 47%

‘박 대통령 미국 방문, 국익에 도움됐다’: 66% -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 -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3~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묻은 결과 ‘매우 도움이 됐다’ 25%,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41%로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모두 66%였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6%로 21%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 됐다는 사람은 50대(75%), 60세 이상(79%)에서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397명) 중에서 82%, 민주당(209명), 지지정당 없음(360명) 중에서는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매우+어느정도) 도움이 됐다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3	66	21	13
성별	남성	497	67	22	11
	여성	506	65	20	15
연령별	19~29세	185	56	28	16
	30대	199	61	30	8
	40대	218	59	26	16
	50대	195	75	14	11
	60세 이상	207	79	7	15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397	82	8	10
	민주당	209	57	32	11
	지지정당없음	360	57	25	18

질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익에 도움이 됐던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 27%, ‘대북정책 공감대’ 14%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사람들(66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한미동맹 강화’가 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북정책 공감대 확인’ 14%, ‘경제 교류/기업투자 유치’ 13%, ‘국가 위상 높아짐’ 11%, ‘안보 강화’ 6%의 순이었다.

▶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 방문 긍정 평가자 기준(662명)	%
한미동맹 강화	27
대북정책 공감대 확인	14
경제 교류/기업투자 유치	13
국가 위상 높아짐	11
안보 강화	6
미 의회 연설 잘함	5
전반적으로 잘함	4
한복/한국문화 알린 것	1
일본 역사의식 비판	1
모름/응답거절	17

질문) 어떤 점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유응답)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 45%, ‘뚜렷한 성과 없음’ 26%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들(20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윤창중 성추행 사건’ 45%, ‘뚜렷한 성과 없음’ 26% 등의 답이 상위에 올랐다.

▶ 박 대통령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 방문 부정 평가자 기준(209명)	%
윤창중 성추행 사건	45
뚜렷한 성과 없음	26
의례적 행사	7
대북/북핵 해결점 못 찾음	6
미국 입장만 들었음	4
경제 성과 없음	2
미 의회 연설 잘못함	1
모름/응답거절	8

질문) 어떤 점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유응답)

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 의회 연설' 31%, '윤창중 대변인 경질' 8%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을 묻은 결과 '미 의회 연설'이 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윤창중 대변인 경질'이 8%, '한복/한국문화 알린 것' 5% 순으로 나타났다.

▶ 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단위: %)

전체 응답자 기준(1,003명)	%
미 의회 연설	31
윤창중 대변인 경질	8
한복/한국 문화 알린 것	5
한미정상회담	4
대북 공감대 형성	4
경제/투자 유치	2
한미동맹 강화	2
국가 안보 강화	1
기타	3
특별히 한 일 없다	6
모름/응답거절	34

질문) 이번 방미 중 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유응답)

미국 방문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는?: '좋아졌다' 39%, '나빠졌다' 10%, '변화 없다' 47%

이번 미국 방문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은 결과 '더 좋아졌다' 39%, '더 나빠졌다' 10%로 긍정적 변화가 더 많았으며, 방미 전후 생각에 '변화 없다'는 47%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50대(52%), 60세 이상(58%)에서 많았고 새누리당 지지자(58%)에서 많아 기존 지지층의 호응이 컸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의 2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27%에서도 방미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 미국 방문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는?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변화 없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003	39	10	47	4
성별	남성	497	35	12	49	4
	여성	506	43	8	45	4
연령별	19~29세	185	20	13	64	3
	30대	199	29	11	58	3
	40대	218	34	14	45	7
	50대	195	52	8	37	3
	60세 이상	207	58	4	31	6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397	58	6	33	3
	민주당	209	28	12	58	1
	지지정당없음	360	27	12	54	7

질문) 이번 미국 방문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혹은 변화 없습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